

제목: 아버지께로 간이라 **Go to my Father's House**

본문, 요한복음 **16:16-22** 절

**16.**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"**A little while, and you will no longer see Me; and again a little while, and you will see Me.**"

**17.**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**Some of His disciples then said to one another, "What is this thing He is telling us, 'A little while, and you will not see Me; and again a little while, and you will see Me'; and, 'because I go to the Father'?"**

**18.**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**So they were saying, "What is this that He says, 'A little while'? We do not know what He is talking about."**

**19.** 예수께서 그 물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**Jesus knew that they wished to question Him, and He said to them, "Are you deliberating together about this, that I said, 'A little while, and you will not see Me, and again a little while, and you will see Me'?**

**20.**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"**Truly, truly, I say to you, that you will weep and lament, but the world will rejoice; you will grieve, but your grief will be turned into joy.**

**21.**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"**Whenever a woman is in labor she has pain, because her hour has come; but when she gives birth to the child, she no longer remembers the anguish because of the joy that a child has been born into the world.**

**22.**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"**Therefore you too have grief now; but I will see you again, and your heart will rejoice, and no one will take your joy away from you.**

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미리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.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본래 계시던 그곳 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계신 그곳이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곳이 우리 제자들이 가야 할 곳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.

그래서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본문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여 올라 가시는 곳을 미리 알려 주는 이유는 후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(**1 절**).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.

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큰 환란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교인들이 출회를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때에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(**2 절**). 그 이유는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(**3 절**).

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은 하는 것은 그 때를 당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도록 하기 때문인데 처음부터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뿐 더러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함께 계셨기 때문이지만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곧 유월절이 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(**4 절**)

예수님께서는 곧 이 일이 오는데 지금도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(**5 절**)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므로 제자들이 불안해하면서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(**6 절**). 지금 그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.

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도 해야 하는 이유는 곧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혼돈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(**7 절**).

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, 의에 대하여,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(**8 절**). 이 세가지가 모두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인데 ‘죄에 대하여’라 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 이후에 죄는 ‘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’이 죄라는 것입니다(**9 절**). 그리고 ‘의에 대하여’라 함은 “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함이라”라는 것입니다. 의는 곧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자는 천국으로,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자는 지옥으로 구별되는 기준이 ‘의’라는 것입니다. 즉 의는 곧 ‘하나님의 공의’를 말하는 것입니다(**10 절**). 마지막으로 ‘심판에 대하여’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하셨습니다.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멸망하거나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(**11 절**).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하지 않으며(**12 절**),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데 그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(**13 절**). 그 때에 성령께서 전하는 말을 통하여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알리게 되어 영광이 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(**14 절**). 즉 성령께서 전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고,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성령께서 전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(**15 절**)

본문 이전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제자들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삼 년 동안 생활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곧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본래 계셨던 곳 즉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.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“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(**16-18 절**).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어 보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말하는 것을 아셨습니다(**19 절**).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. 곧 “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”라는 내용입니다. 이 말씀을 하실 때 “진실로 진실로”라고 강조하신 내용은 곧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 내용은 곧 일어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. 이 때 이 세상 즉 악한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처럼 기뻐했습니다.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단이 여자가 낳은 아이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‘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’는 것을 이미 예견하신 내용이었습니다(**창세기 3:15** 절 “내가 너(뱀,마귀,사단)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(뱀,마귀,사단)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이라”). 그러나 “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”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신 내용입니다(**20 절**). 예수님께서 여자들의 해산할 때의 고통과 그 해산 후에 기쁨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(**21 절**).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근심하게 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,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.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(**22 절**).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. 구원 즉 영원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영생의 길로 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이것이 성도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.

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.

### 첫째,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(**16 절**)

1.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있었습니다 (**요한복음 20:7** 절 “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.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.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,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”)
2.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(**요한복음 14:4** 절 “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”. **12 절** “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, 또한 이 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”)
3.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(**요한복음 14:2-3** 절 “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”)

둘째,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(20 절)

1.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성도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(골로새서 1:20 절 “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”)
2. 예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(에베소서 4:32 절 “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”)
3.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(골로새서 1:14 절 “아버지 하나님의 아들(예수님) 안에서 우리가(성도)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”)

셋째,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(22 절)

1. 구원이 있습니다 (요한복음 14:19 절 “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”)
2. 하나가 됩니다 (요한복음 14:20 절 “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, 너희가 내 안에,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”)
3.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(요한계시록 21:4 절 “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”)